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별 참고봉사 활성화 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ubjectized Reference Services'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이 응 재(Yong-Jae Lee)*

목 차

- | | |
|------------------|---------------------------------------|
| 1. 서론 | 2. 2 참고열람실 조직 현황 |
|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2. 3 주제별 참고봉사에 대한 의견 |
| 1.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 2. 4 참고사서의 계속교육 및 문헌정보 학 교육에 대한 의견 |
| 1. 3 관련연구 | 3. 결론 및 제언 |
| 2. 조사결과의 분석 및 해석 | |
| 2. 1 참고사서 개인사항 | |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주제별 참고봉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개념을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교 도서관의 참고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실적 여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the reference services of the Korean university libraries and examined ways to improve the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subjectized reference services' and tried to find a way to apply it to the present stage of the Korean university librarie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surveyed the reference librarian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across the coun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raining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who can provide specialized services appropriate to the realities of the Korean university libraries.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
접수일자 2000년 4월 14일

1.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대학도서관은 대학과정(university process), 즉 연구, 교수-학습, 사회에의 봉사과정에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학내의 지원시설이다(김정근 1995b, 149). 대학의 존재이유가 학문활동에 있다면, 대학도서관의 존립기반은 이러한 학문활동을 다양한 자료로써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은 해방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본래의 학문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제별 참고봉사'라는 개념을 모색하여 보았다. '주제별 참고봉사'란 학문분야별로 세분하여 수행하는 참고봉사를 말한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참고업무(reference work)'를 "이용자에게 각 주제에 관한 문헌조사를 도와주는 도서관업무 중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다(사공 철 등편 1996, 358). 따라서 참고봉사라고 하면 이미 그 용어 속에 '주제별로' 이용자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주제별 참고봉사'라고 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참고봉사라고 하면, 대체로 참고열람실 담당 직원이 이용자의 질문에 지시형 또는 즉답형 응답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참고사서가 이용자의 주제분야에 맞추어 자료이용을 돕고 나아가 자료를 개발하는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구와 같은 도서관선진국에서는 대학도서관에 주제전문사서가 상당수 존재하여 이들에 의한 주제별 참고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차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낮은 인식, 기능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이 강한 대학도서관 조직, 주제지식이 미약한 사서진 등등의 '한국적인' 상황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참고봉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한 방안으로 최근 국내의 일부 대학도서관들은 '주제자료실'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주제자료실이란 특정 학문분야의 자료를 모아두고 참고봉사를 수행하도록 조직된 자료실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사례도서관들의 경우 대체로 인문·사회·자연·기술 과학별로 주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즉, 종래의 단행본실, 연속간행물실 등과 같이 자료를 형태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과학실, 자연과학실 등과 같이 주제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주제담당사서제'를 시도하는 대학도서관들도 늘고 있다. '주제담당사서제'란 서구와 같은 주제배경을 가진 주제전문사서를 활용할 수 없는 국내 대학도서관 현실에서, 현단계 사서인력으로 학문분야를 분담하여 서비스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래는 주제와 관계 없이 모든 자료를 통괄처리하던 것을 인문·사회·자연·기술 과학 등과 같이 크게 나눈 주제분야별로 도서관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의 한 연구는 주제담당사서를 중

심으로 주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으로 계명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전주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도서관 등을 들고 있다(강혜영 1999, 3-4).

위와 같은 움직임은 현단계 상황에서 주제 지식의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고심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대학도서관 사서가 각 주제분야 이용자의 학문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과도기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는 첨단 정보 기술은 물밑 듯이 들어오는데 비하여, 사서가 정비된 주제지식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문제는 여전히 난제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종래와 같이 우리나라의 뜻있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서구식 개념인 '주제전문사서'를 지난 수십년간 소개하고 제시해왔지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 주제전문사서가 채용되거나 양성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우리 대학도서관 현장은 이러한 주제서비스 문제에 직면하여 더욱 실천가능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현단계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문헌정보학과를 나와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서인력을 주축으로 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진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 글을 구성하였다.

1.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교의 도서관 참고부서에 근무하는 책임자 또는 참고데스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주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는 주제자료실의 실무자 중 한 사람 앞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위 설문을 『국립대학도서관보』(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99)와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1999)을 참고하여, 총 142개 대학도서관(국립대 49개관, 사립대 93개관)에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1999년 8월 12일에 송부하여 8월 31일까지 회신을 요구하였는데, 56개관만이 회신하였다. 때문에 미응답 도서관을 대상으로 1999년 9월 6일에 설문지를 재발송하여 9월 22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는데, 31개관이 추가로 응답하여 총 87개관이 회신하였다(응답률 61.3%).

설문지를 분석할 때, 우선 응답한 참고봉사 담당 직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둘째, 응답한 도서관의 참고부서의 조직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주제별 참고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으며 넷째, 참고사서의 계속교육과 문헌정보학 교육의 두 측면에서 이러한 주제별 참고봉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는데, 응답한 도서관의 현황과 응답자들의 의견을 기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교의 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全數)조사의 성격

을 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응답률이 61.3%에 이르렀으나 설문지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설문대상자를 참고 열람실(또는 주제자료실) 담당사서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전체 사서진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3 관련연구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는 국내외에 무수히 많다. 서구와 같은 도서관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 중 두드러지는 것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계통의 국내외 연구를 망라적으로 정리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론』(한상완 1986)은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하였다. 한상완의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현황과 기능을 조사 분석하고 정보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주제전문사서가 수행한 정보서비스의 정확률이 우수한 사실을 밝혔다(한상완 1986, 178). 한상완의 연구는 여타 주제전문사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주제전문사서의 최저 자격으로 석사학위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뜻 있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사서들이 선진국의 사례에 의거하여 주제전문사서 논의를 지난 수십년간 계속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 이러한 수준의 주제전문사서가 채용되거나 의도적으로 양성될 가능성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따라

서 주제전문사서 논의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상황에 착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학부제와 같은 대학 교육프로그램의 변화에 발맞추어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김달식 1996)라는 논문은 현행 교육 제도하에서의 방안과 학부제를 활용할 경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전공교육에 관한 비교연구」(강미혜 1999)라는 논문은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 이상 세 집단에게 주제전문사서직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조사·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세 집단 모두 주제전문사서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반전공교육(General Culture)으로 '컴퓨터'와 '영어'를 제시하고 있다(강미혜 1999, 138).

또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발맞추어 참고사서의 역할을 재고하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의 「온라인 정보기술 환경과 참고사서의 역할 재고」(노옥순 1998)라는 연구는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고사서들은 전통적인 정보추구의 기술과 자세를 계속 확대하여 이용자를 돕는 일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보기술이 참고사서들을 배제시키기 보다는 이들이 이용자 요구에 더욱 빠르고 다양한 형태로 부응하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노옥순 1998, 140). 이처럼 참고사서는 이용자에게 친절한 안내자이자 교육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대학도서관 참고사서, 문헌정

보학과 교수, 대학도서관 최고관리자를 대상으로 델파이(Delphi)기법을 사용하여 이들 전문가 집단의 미래 전망을 살펴본 한 연구(Otto 1979)에 의하면, 2000년에는 참고사서가 주제서지 자문가(subject/bibliographic consultant)로서의 역할을 증대할 것이고 특히 정보를 다루는 기술적 영역에서 연구하는 역할도 더욱 많이 수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인간심리와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Otto 1979, ii).

최근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특정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김정근 1995a)라는 논문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주제화 논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대학도서관 사서진이 주제화라는 문제와 씨름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에 맞는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줄고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이용재 1998)은 최근 국내에서 주제자료실 체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례 도서관들을 살펴보고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 인력에 바탕을 두는 '주제사서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줄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주제서비스의 현단계: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이용재 1999a)라는 연구도 도서관개혁운동을 경험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최근 주제자료실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용자봉사에 한걸음 앞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향후의 기본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같이 분관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일 건물 속에 주제별로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 주제담당사서제에 관한 연구』(강혜영 1999)라는 논문은 '주제자료실'과 '주제담당사서'라는 현실적 개념에 착안하고 있다. 한편 「대학도서관 변화의 방향: 주제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정재영 1999)라는 논문에서 서강대학교 도서관 참고사서가 이 도서관의 주제관 운영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제별 참고봉사의 여러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사서는 「주제관형태 대학도서관에서의 효과적인 참고봉사방안」(정재영 2000)이라는 후속 논문을 발표하여, 이 분야에서 더욱 실천적인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2. 조사결과의 분석 및 해석

2.1 참고사서 개인사항

본 설문에 응답한 참고직원 모두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응답자의 경우 참고사서라고 표기하였다. 먼저 응답자 개개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인사항에 응답한 참고사서는 모두 87명인데, 그 중에서 남자는 50명(57.5%), 여자는 37명(42.5%)으로 남자가 과반수였다.

2.1.1 연령

응답자 중 20대가 7명(8.0%), 30대가 46명

(52.9%), 40대가 31명(35.6%), 50대가 3명(3.4%)으로 30대와 40대가 88.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어떤 직업 분야에서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와 40대가 응답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참고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인력개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2. 1. 2 근무연수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소속 도서관에서 근무한 총 연수, 참고열람실에서의 총 근무연수, 현재의 참고데스크 근무연수를 알아보았다.

2. 1. 2. 1 도서관 총 근무연수

우선 도서관에서 근무한 총 연수를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11.7년이였다. 이를 자세히 보면 6~10년인 경우가 30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1~15년인 경우로 27명(31.0%)이였다. 이어 16~20년이 13명(14.9%), 5년이하가 10명(11.5%) 순이며, 21년 이상인 경우도 7명(8.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다수(65.5%)가 6~15년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기간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 2. 2 참고열람실 총 근무연수

이 질문에 응답한 참고사서 78명의 참고열람실 평균 근무연수는 4.1년이였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2년 이하가 29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년이 20명(25.6%), 5~6년이 17명(21.8%) 순이였다. 자세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2. 1. 2. 3 현 참고데스크 근무연수

현재의 참고데스크에서 근무한 햇수를 살펴보면, 응답자 74명의 평균 근무연수는 2.5년이였다. 1년 이하인 경우가 29명(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이 17명(23.0%)이었으며, 이 둘을 합하면 62.2%에 이른다. 이처럼 참고데스크에서 직접 이용자를 상대하여 참고봉사를 펼치는 일에는 상당한 경력과 노하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짧은 기간 동안 참고데스크 근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2. 1. 3 직렬

직렬을 ① 사서직(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정직원) ② 행정직 ③ 기능직 ④ 임시직(기성회

<표 1> 참고열람실 총 근무경력

| 경력 | 인원 | 백분율 | 조정백분율 | 누적백분율 |
|-------|----|-------|-------|-------|
| 1~2 년 | 29 | 33.3 | 37.1 | 37.1 |
| 3~4 년 | 20 | 22.9 | 25.6 | 62.7 |
| 5~6 년 | 17 | 19.5 | 21.8 | 84.5 |
| 7~8 년 | 9 | 10.3 | 11.6 | 96.1 |
| 9년 이상 | 3 | 3.3 | 3.9 | 100.0 |
| 계 | 78 | 89.7 | 100.0 | |
| 무응답 | 9 | 10.3 | | |
| 총계 | 87 | 100.0 | | |

〈표 2〉 현 참고데스크 근무경력

| 근무연수 | 인원 | 백분율 | 조정백분율 | 누적백분율 |
|-------|----|-------|-------|-------|
| 1년 이하 | 29 | 33.3 | 39.2 | 39.2 |
| 2년 | 17 | 19.5 | 23.0 | 62.2 |
| 3년 | 9 | 10.3 | 12.2 | 74.4 |
| 4년 | 9 | 10.3 | 12.2 | 86.6 |
| 5년 이상 | 10 | 11.5 | 13.5 | 100.0 |
| 계 | 74 | 85.1 | 100.0 | |
| 무응답 | 13 | 14.9 | | |
| 총계 | 87 | 100.0 | | |

직, 계약직 등)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응답자 중 94.2%에 이르는 82명이 사서직이었으며, 그 외 기능직과 임시직이 각각 2명이었고 행정직이 1명이었다. 그런데 행정직, 기능직, 임시직으로 도서관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모두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였다. 따라서 응답자 100%가 사서 자격으로 참고봉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1. 4 직위

여기서는 응답자들의 직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즉, 상위관리자급(부관장, 사서장, 과장 등), 중간관리자급(주무, 주임, 계장 등), 평사서급 이상 3가지 수준이다. 응답자 중 평사서가 51명(59.3%)으로 과반수였고, 그 다음으로 중간관리자 31명(36.0%), 상위관리자 4명(4.7%) 순이었다.

2. 1. 5 학력

여기서는 응답자 개인의 최종학력을 살펴 보았다. 사서직의 학업성취, 주제배경의 문제 등과 같은 이 글의 취지에 맞추어 살펴보기 위해, 학력구분을 비교적 자세히 구분하여 보았다. 우선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과정, 박

사과정으로 크게 구분한 뒤,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즉, ① 고교 졸업 + 사서자격증 소지(단기과정 등) ②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도서관과) 졸업 ③ 전문대학 타 학과 졸업 + 사서자격증 소지(단기과정 등) ④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 ⑤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포함) 타 학과 졸업 + 사서자격증 소지 ⑥ 문헌정보학사 +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또는 학위취득) ⑦ 문헌정보학사 + 타 분야 석사(과정 또는 학위취득) ⑧ 타 분야 학사 + 문헌정보학 또는 타 분야 석사(과정 또는 학위취득) + 사서자격증 소지 ⑨ 박사(과정 또는 학위취득) ⑩ 기타 이상 10가지로 구분하였다.

응답자 86명의 학력을 크게 구분하여 살펴 보면, 대졸 53명(61.6%), 대학원 석사(또는 과정) 22명(25.6%), 전문대졸 7명(8.2%), 고졸 2명(2.3%), 박사(또는 과정) 2명(2.3%)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처럼 대학도서관 참고사서의 학력이 주로 대졸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참고사서직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용자를 주대상으로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를 다시 위의 같은 세구분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명(46.5%)이 4년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서인 경우였다. 그 다음은 13명(15.1%)으로 4년제 대학 타 학과(방송통신대 포함) 졸업의 학력과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였다. 그 다음 11명(12.8%)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타 분야의 대학원(주로 특수대학원)에서 다른 주제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였다. 이어 문헌정보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6명(7.0%)이었다. 그 다음은 타 학과를 졸업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타 분야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5명(5.8%)이었다. 이처럼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2급정사서 인력이 참고봉사의 주된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고 동시에 많은 참고사서들이 문헌정보학과를 비롯한 여러 주제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양한 주제분야 지식을 연마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환경에 주제별 참고봉사를 앞당기는 데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 학부과정에서 타 주제분야를 전공하고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와 타 분야 학사로서 문헌정보학 또는 타 분야 석사과정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이들의 주제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도서관 전체업무 및 참고봉사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대학원과정에서 타 주제분야를 전공하는 사서들의 경우를 살펴보았더니, 경영·행정·사회개발·신문방송·교육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경영·행정·사회개발대학원에서 경영학·일반행정·경영정보·정보처리·노사관계 등을 연구하는 사서가 6명, 교육대학원에서 사서(문헌정보학)교육·교육행정·미술교육 등을 연구하는 사서가 6명, 신문방송·언론대학원에서 출판잡지·인쇄매체 등을 전공하는 사서가 2명이었고 그 외 불교사학 전공자가 1명, 서양화 전공자가 1명 있었다. 한편 박사(또는 과정)인 경우는 2명인데 모두 문헌정보학을 학부에서 박사과정까지 계속하는 경우였다. <표 3>은 이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참고사서의 최종학력

| 최종학력 | 인원 | 백분율 | 조정백분율 | 누적백분율 |
|-----------------------------------|----|------|-------|-------|
| 고졸 + 사서자격증 | 2 | 23 | 23 | 23 |
| 전문대 문헌정보과 졸업 | 3 | 34 | 35 | 58 |
| 전문대 타 학과 졸업 + 사서자격증 | 4 | 46 | 47 | 105 |
| 4년제 문헌정보학과 졸업 | 40 | 460 | 465 | 570 |
| 4년제 타 학과 졸업(방통대 포함) + 사서자격증 | 13 | 149 | 151 | 721 |
| 문헌정보학사 + 문헌정보학 석사(또는 과정) | 6 | 69 | 70 | 791 |
| 문헌정보학사 + 타 분야 석사(또는 과정) | 11 | 126 | 128 | 919 |
| 타 분야 학사 + 문헌정보학 또는 타 분야 석사(또는 과정) | 5 | 57 | 58 | 977 |
| 박사(또는 과정) | 2 | 23 | 23 | 1000 |
| 계 | 86 | 989 | 1000 | |
| 무응답 | 1 | 11 | | |
| 총계 | 87 | 1000 | | |

2. 1. 6 사서자격증 보유 현황

응답자 중 2급 정사서가 58명(6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급 정사서가 17명(19.5%), 준사서가 12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급 정사서 인력이 응답한 대학도서관 참고봉사의 주된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1. 7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학회 및 전문단체

이 문항에는 복수응답(여러 단체에 가입한 경우)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응답자 87명 중 몇 명이 가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응답자 전체적으로 볼 때, 전문단체에 개인회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저조한 편이었다. <표 4>에서 보듯이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참고사서로서 직업생활을 하는 경우가 57명으로 응답자 중 65.5%에 달하였다.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단체 중에서는 한

국도서관협회에 가입한 경우가 23명(26.4%)으로 가장 많았다. 학회가입이 대체로 저조한 편인데 사서들의 참여를 적극 고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1. 8 참고봉사를 특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제분야

이 질문은 여러 학문분야 중 답변자가 참고봉사를 특히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응답해 달라는 것이었다. 답변항으로 8개항(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의학, 법학, 농학, 기타)을 제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1위에서 5위까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의 순위는 ① 인문과학 ② 사회과학 ③ 자연과학 ④ 기술과학 ⑤ 법학 순이었다. 그 외 분야의 우선 순위는 농학, 의학, 기타(예술학, 체육학 등)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응답한 참고사서들은 대체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봉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표 4>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전문단체

| 전문단체명 | 응답자수 | 해당인원수 | 백분율 |
|------------|------|-------|------|
| 한국문헌정보학회 | 87 | 4 | 4.6 |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87 | 9 | 10.3 |
| 서지학회 | 87 | 2 | 2.3 |
| 한국서지학회 | 87 | 0 | 0.0 |
| 한국정보관리학회 | 87 | 4 | 4.6 |
| 한국정보과학회 | 87 | 0 | 0.0 |
| 한국도서관협회 | 87 | 23 | 26.4 |
|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 87 | 1 | 1.1 |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87 | 0 | 0.0 |
| 전국사서협회 | 87 | 3 | 3.4 |
| 도서관운동연구회 | 87 | 1 | 1.1 |
| 기타 | 87 | 3 | 3.4 |
| 비가입 | 87 | 57 | 65.5 |

있고, 자연·기술과학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함을 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법학, 농학, 의학 등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주제분야로 들어갈수록 참고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2. 1. 9 참고질문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

이 질문에서는 참고질문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순위 1위에서 5위까지 선택하라고 하였다. 응답의 순위는 ① 자료의 부족 ② 참고데스크 담당인력의 부족 ③ 주제지식의 부족 ④ 참고봉사에 대한 도서관 내외의 인식 부족 ⑤ 시간의 부족 순이었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응답한 참고직원들이 '자료의 부족'을 참고봉사의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것은 양질의 자료를 입수하고 소장하는 일이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또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2. 2 참고열람실 조직 현황

여기서는 참고봉사가 이루어지는 조직 환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참고사서가 수행하는 참고봉사는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의 조직환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2. 1 참고열람실 조직 형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참고열람실의 조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참고열람실의 조직 형태를 다음과 같이 4종류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연속간행물 부서와 함께 한 실에 존재하는 경

우 둘째, 참고열람실이 독립된 실로 존재하는 경우 셋째, 주제자료실별로도 참고데스크가 있지만 참고열람실은 독립된 실로 존재하는 경우 넷째, 참고열람실이 주제자료실에 흡수된 경우 이상 4가지이다.

응답한 87개 도서관 중 첫째 유형이 40개관(46.0%)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은 둘째 유형으로 23개관(26.4%)이었다. 셋째 유형과 넷째 유형과 같이 주제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모두 20개관(22.9%)이었으며, 그 중에서 참고열람실을 인문·사회·자연·기술과학 등 주제자료실에 통합한 경우가 11개관(12.6%), 주제자료실을 운영하지만 참고열람실은 따로 두는 경우가 9개관(10.3%)이었다.

참고자료는 대학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대학도서관 장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참고자료를 소장하고 참고봉사를 펼치는 참고열람실에 대한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응답한 도서관들 중에서 참고열람실이 독립되지 못하고 연속간행물실과 함께 있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참고봉사의 저발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주제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반드시 참고봉사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고봉사를 하는 경우보다 특정 주제분야의 이용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참고봉사를 하는 경우가 더욱 전문화된 봉사를 제공하는 조직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내의 대학도서관 중에서 주제자료실 조직을 갖추고 주제별 참고봉사에 진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들을 지난 수년

간 탐방하여 주제자료실 담당 사서들과 면담을 하여본 결과, 이 주제별 조직이 현단계에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참고봉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조직환경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이용재 1998; 1999a). 그런데 이 연구에서 응답 도서관 중 22.9%만이 주제별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볼 때, 대체적으로 이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조직환경에서 주제별로 분화하여 이용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장서규모, 도서관 조직관리 등)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2. 2 참고데스크 존재 형태

참고데스크의 존재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첫째, 참고열람실에만 존재하는 경우 둘째, 주제자료실별로 존재하는 경우 셋째, 도서관 중앙입구와 참고열람실 내에 존재하는 경우 넷째, 도서관 중앙입구와 주제자료실별로 존재하는 경우 이상 4가지이다.

이 질문에 응답한 85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유형이 51개관(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둘째 유형으로 14개관(16.5%)이었다. 셋째 유형과 넷째 유형과 같이 도서관 입구에 종합안내데스크(information desk)를 운영하는 경우는 모두 10개관(11.8%)이었고, 이를 다시 구분하면 참고열람실 외에 도서관입구에 종합안내데스크를 운영하는 셋째 유형이 5개관(5.9%)이고, 주제자료실별로 존재하는 동시에 도서관입구에 종합안내데스크를 두는 넷째 유형이 5개관(5.9%)이었다. 이 중에서 주제자료실별로 참고데스크가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합치면 19개관(22.4%)이었다.

대학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각종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사서가 근무하는 종합안내데스크가 도서관입구에 존재한다면 대학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듯 이와 같은 종합안내데스크가 존재하는 경우는 응답도서관 중 11.8%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이 참고데스크를 도서관 입구에 전진배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주제자료실 별로 참고데스크가 존재할 경우 각 주제분야의 이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참고봉사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응답도서관 중 22.4%에 그쳐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2. 3 참고데스크 담당직원

여기서는 참고데스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보았다.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특히 직원의 총수, 남녀 비율, 직종별 비율 등을 알아보았다.

2. 2. 3. 1 직원의 총수

이에 응답한 80개 도서관의 참고데스크 담당직원의 수는 평균 3.26명이었다. 이를 다시 참고직원수 별로 살펴보면 참고직원이 1명인 경우가 33개관(41.3%), 2명인 경우가 21개관(26.3%)이었다. 이처럼 응답도서관 중 67.6%에 이르는 54개관이 1~2명의 직원으로 참고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3명인 곳이 9개관(11.3%)이었고, 4명부터는 해당도서관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4명 이상은 모두 17개관(21.2%)이었다.

이처럼 1~3명과 같이 매우 적은 인원으로 참고데스크를 운영하는 경우가 응답도서관 중 약 80%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참고봉사 인력이 질적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양적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2. 3. 2 남녀 비율

여기에 응답한 62개 도서관의 남자직원 총수는 66명이었고 여자직원 총수는 101명이었는데, 이를 백분율로 대비하면 남자 39.5%이고 여자 60.5%이었다. 이로써 응답한 도서관의 참고데스크 담당직원의 남녀 성비는 약 4:6임을 알 수 있었다.

2. 2. 3. 3 직종별 비율

응답 대학도서관의 참고직원들의 직종별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직종별 인원수를 파악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보듯, 참고데스크 담당직원의 대부분(75.0%)은 사서직이었다. 그런데 비전문직인 행정직이나 기능직이 참고데스크를 맡고 있는 경우도 24명(9.4%)이 있었다. 또한 임시직(기성회직, 계약직 등)의 경우, 적지 않는 비율(14.1%)로 참고봉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서직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임시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2. 3 주제별 참고봉사에 대한 의견

여기서는 대학도서관 조직의 측면에서 주제별(학문분야별) 참고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고사서들의 의견을 구하여 보았다.

2. 3. 1 주제별 참고서비스 활성화 방안

먼저 대학도서관 참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제별 참고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보았다. 여러 방안 중에서 우선순위 5위까지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① 현 사서인력에 대한 계속교육 ② 주제별 전문인력(석사 수준)의 활용 ③ 참고봉사를 열람부서의 중요 업무로 규정 ④ 열람실 조직을 주제별(주제자료실 방식)로 조직 ⑤ 이용자교육의 주제별 특화 순이었다.

2. 3. 2 대학도서관에서 주제별 참고봉사를 수행하는 사서에 대한 명칭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현재의 참고봉사

<표 5> 참고데스크 담당직원의 직종별 비율

| 직종 | 인원 | 백분율 | 누적백분율 |
|-----|-----|-------|-------|
| 사서직 | 192 | 75.0 | 75.0 |
| 행정직 | 15 | 5.9 | 80.9 |
| 기능직 | 9 | 3.5 | 84.4 |
| 임시직 | 36 | 14.1 | 98.5 |
| 기 타 | 4 | 1.6 | 100.0 |
| 총 계 | 256 | 100.0 | |

단계에서 진일보한 주제별 참고서비스를 활성화할 경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에 대한 명칭으로 무엇이 적절할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 58명(67.4%)이 '주제전문사서'라는 명칭을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은 10명(11.6%)이 '정보사서'를 선택하였다. 또한 5명(5.8%)이 '참고사서'를, 4명(4.7%)이 '주제사서'를, 2명(23%)이 '주제전문가'를 선택하였다.

기타 응답자의 경우, '주제정보사서', '참고전문사서', '전문사서', '정보컨설턴트' 등 다른 명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제를 더욱 세분하여 생물학사서, 영문학사서 등의 명칭을 제시한 응답자도 있는 반면,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사서는 그냥 사서일 뿐", "꼭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여 사서 명칭의 일관성과 사서직의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2. 3. 3 주제별 참고봉사 수행 인력의 일반적 기능

여기서는 주제별 참고봉사를 수행하는 인력이 해야할 일 중에서 중요도 순으로 5위까지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① 주제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장서개발 ② 특정 주제분야의 정보검색 서비스 ③ 정보배포와 최신 정보 주지서비스 ④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및 자료 활용법의 정규·비정규 강의와 안내 ⑤ 학과, 학생 및 교수와의 긴밀한 교량의 역할 순으로 대답하였다.

2. 3. 4 주제별 참고봉사 인력의 양성이 사서직의 전문직으로의 발전에 긍정적인 인가에 대한 의견

대학도서관에 주제별로 참고봉사를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경우, 이것은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질문하여 보았다. 이 질문에 응답자 87명 중 "약간 그렇다"가 38명(43.7%), "매우 그렇다"가 29명(33.3%)으로 응답자의 7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3. 5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참고봉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참고봉사의 질을 향상하는 데 우선되어야 할 정책들을 1위에서 5위까지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① 참고사서로서의 적성과 자질을 갖춘 사서인력의 배치 ② 사서의 주제별 정보검색 활동 강화 ③ 도서관 전체 장서의 양적, 질적 향상 ④ 대학도서관 내외정보망의 확충과 이의 효율적 이용 ⑤ 인문, 사회, 자연, 기술 과학 등 참고열람실의 주제분야별 조직 순으로 응답하였다.

2. 4 참고사서의 계속교육 및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의견

여기서는 참고사서에게 필요한 계속교육의 형태와 내용, 주제별 참고서비스 수행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보았다. 이 문항들 역시 우선순위 5위까지 알아보았다.

2. 4. 1 주제별 참고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계속교육의 형태에 대해 응답자들은 ① 전문단체 또는 학

회를 통한 세미나, 워크샵 ② 국내외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견학 및 연수 ③ 주제분야 교수 및 대학원생의 활용(초청강의, 자문 등) ④ 대학내외 교육기관을 활용한 컴퓨터 및 영어 교육 ⑤ 소속 대학도서관에서의 직원간 정보공유를 통한 자체 교육 순으로 응답하였다.

2. 4. 2 주제별 참고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기대하는 구체적 교육내용

이에 대한 응답 순위는 ①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정보검색 ② 학문분야별 기초 지식 및 학문동향 ③ 일반 참고정보원 및 주제별 서지정보원 ④ 뉴미디어(CD-ROM, 인터넷 등)의 활용방법 ⑤ 이용자연구, 이용자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2. 4. 3 주제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서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이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① 문헌정보학 학사 출신으로 문헌정보학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제분야에 대하여 특화된 교과를 이수하게 하거나 연구하게 한다 ② 문헌정보학 교육을 대학원 수준으로 바꾸어(현행의 학부과정은 폐지), 학부에서 다른 주제분야를 수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서를 양성한다 ③ 문헌정보학 학사 출신으로 다른 주제분야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이 주제(전문)사서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④ 현행 학부수준의 교육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제도를 활용한다 ⑤ 현행 학부수준의 교육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제도를 필수적으로 부과한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2. 4. 4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주제(전문) 사서가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교육적 환경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이유 이에 대한 응답 순위는 ①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결여 ② 주제(전문) 사서 제도에 대한 정부와 대학당국의 이해 부족 ③ 사서를 교육하는 대학교육 제도가 학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 ④ 대학도서관 조직 환경이 주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⑤ 근대 문헌정보학의 수용 역사가 짧기 때문 순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현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정보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디지털도서관'으로 대변되는 전자환경이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대학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중핵기관으로 그 기반을 확고히 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자는 지난 수년간 국내외의 여러 대학도서관들을 방문하고 관찰하면서 대학도서관 사서진과의 대화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진로를 나름대로 모색하여 본 경험이 있다.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수진 및 학생들의 학문활동을 다양한 자료로써 지원하는 센터로서 이미 그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자료의 수집, 보존, 조직, 배포(CPOD)의 전과정에서 아직 개척단계에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

는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진과의 대화를 통해 도서관서비스를 제약하는 이런저런 한국적 상황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동안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소개하고 제시해온 '주제전문사서'라는 선진적 개념이 국내 현실에는 착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제별 참고봉사'라는 개념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교 도서관의 참고봉사 부서 담당자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142개 대상 도서관 중 응답한 도서관은 87개 관이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한 참고사서들의 학력 수준은 현재 대다수가 대졸 이상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개인적 차원에서 각종 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교육을 수행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학력을 크게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졸 61.6%, 대학원 석사(또는 과정) 25.6%, 전문대졸 8.2%, 고졸 2.3%, 박사(또는 과정) 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급 정사서가 응답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의 주된 인력군(66.7%)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 도서관의 참고열람실 및 참고데스크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제별 참고봉사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었다. 참고열람실이 연속간행물 부서와 함께 한 실에 존재하는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참고열람실

이 독립된 실로 존재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26.4%이었다. 반면, 주제별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22.9%에 그쳤다. 참고데스크의 존재 형태는 참고열람실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제자료실별로 존재하는 경우로 16.5%이었다. 또한 참고데스크 담당직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응답도서관 중 67.6%가 1~2명의 직원으로 참고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를 주제별(학문분야별)로 심화하는 것은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응답자의 대다수(77%)가 생각하고 있었다. 주제별 참고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한 결과, ① 현 사서인력에 대한 계속교육 ② 주제별 전문인력의 활용 ③ 참고봉사를 열람부서의 중요 업무로 규정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제별 참고봉사를 수행하는 사서의 일반적 기능들에 대해서는 ① 주제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장서관리 ② 특정 주제분야의 정보검색 서비스 ③ 정보배포와 최신정보 주지서비스 순으로 대답하였다.

넷째, 응답한 사서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속교육의 형태는 전문단체 및 학회의 세미나, 워크샵이었다. 주제별 참고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계속교육의 형태를 질문한 결과, ① 전문단체 또는 학회를 통한 세미나 및 워크샵 ② 국내외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견학 및 연수 ③ 주제분야 교수 및 대학원생의 활용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회 및 전문단체 참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단체에 개인회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저조한 편이었

다.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참고사서로서 직업생활을 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65.5%에 달하였다.

다섯째, 주제별 참고사서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문헌정보학 학부졸업자(2급 정사서)가 문헌정보학 대학원 및 여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현장 사서들은 선호하였다. 주제별 참고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해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① 문헌정보학 학사 출신으로 문헌정보학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제분야에 대하여 특화된 교과를 이수하게 하거나 연구하게 한다 ② 문헌정보학 교육을 대학원 수준으로 바꾸어, 학부에서 다른 주제분야를 수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서를 양성한다 ③ 문헌정보학 학사 출신으로 다른 주제분야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이 주제별 참고사서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하여 본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관리층은 사서들의 대학원 진학을 권장하고 이러한 학업수행이 주제별 참고봉사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 교육에서는 대졸 수준의 2급 정사서를 주대상으로 문헌정보학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주제별 참고봉사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관계의 전문단체와 문헌정보학계의 각종 학회는 사서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서들의 개인회원 가입과 연구 및 발표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학당국 및 대학도서관 관리층은 사서들의 이러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에서 대구분된 주제분야(인문·사회·자연·기술과학)별로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참고봉사의 질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법학, 의학, 농학 등 대학도서관의 분관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학문분야의 참고봉사를 담당할 수 있는 사서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는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사서진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로서 다소 표면적인 통계분석에 그친 감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각종 사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현장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더욱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미혜. 1999.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전공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1): 129-144.
- 강혜영. 1999. 『대학도서관 주제담당사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99. 『국립대학도서관보』, 17.
- 김달식. 1996.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김정근. 1995a.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 『도서관학논집』, 23: 285-328.
- _____. 1995b.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 _____. 1996.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
- _____. 1997. 『디지털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민음사.
- _____. 1998.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 _____. 2000.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대구: 태일사.
- 노옥순. 1998. 온라인 정보기술 환경과 참고사서의 역할 재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2): 121-142.
- 도서관운동연구회 대학도서관 온라인 소모임. 1999. 대학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모색한다: 대학도서관 살아남기. 『디지털도서관』, 13: 39-47.
- 박상배. 1999. 자료실의 주제별 운영과 전담사서의 역할. 『부산대학교 도서관 도서 100만권 확보 및 주제도서관 구축 기념 세미나』, 1999년 5월 14일. 「부산: 부산대학교 인덕기념관」.
- 버클런드, 마이클. 1998. 『도서관서비스의 재구성: 전자도서관 준비를 위한 제언』. 김병주 옮김. 서울: 구미무역. 원전: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A Manifesto*. ALA, 1992.
- 사공 철 등편.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송선기. 2000.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문제 연구: 삼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도서관』, 55(1): 112-139.
- 이용재. 1994. 『부산대학교도서관 정치학장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_____. 1998.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 『도서관학논집』, 29: 273-311.
- _____. 1999a.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주제서비스의 현단계: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3): 385-404.
- _____. 1999b. 도서관운동과 학술운동에 대한 생각나누기: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의 경험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초청강연』, 1999년 10

- 월 23일. 「용인: 강남대학교 우원관」.
- 장세경 외. 1997. 학술정보원을 기초로 한 대학 도서관 조직구조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신축도서관을 모델로 하여. 『인문논총』(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27: 373-502.
- 정재영. 1999. 대학도서관 변화의 방향: 주제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40(6): 4-19.
- _____. 2000. 주제관형태 대학도서관에서의 효과적인 참고봉사방안. 『도서관』, 55(1): 80-111.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1999. 『99 한국 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
- 한상완. 1986.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론』. 서울: 구미무역.
- _____. 1995. 『정보조사제공론』. 서울: 구미무역.
- Couch, Nena and Nancy Allen. 1993. *The Humanities and the Library*. Chicago: ALA.
- Crawford, Walt and Michael Gorman. 1996.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LA.
- Crossley, Charles A. 1974.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in an Academic Library: His Role and Place". *Aslib Proceedings*, 26: 236-294.
- Fadiran, D. O. 1982.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14: 41-46.
- Freedman, Maurice J. 1993. "Collection Development". 『도서관소식』, 6: 38-45.
- Line, Maurice B. 1991. *Academic Library Management*. London: LA.
- Messick, Frederic M. 1977. "Subject Specialists in Smaller Academic Librari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1: 368-374.
- Moran, Barbara B. 1984. *Academic Libraries: The Changing Knowledge Center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Washington, D. C.: ASHE.
- Otto, Theophil M. 1979. *The Future Role and Function of the Public Service Librarian in the Academic Research Library: A Dephi Study*. Ph.D. dis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Thompson, James. 1987. *An introduction to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4th ed. London: Clive Bingley.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ibraries. 1994. *Annual Report 90-93*.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ibraries.
- Wilson, Louis Round and Maurice F. Tauber. 1956. *The University Library*. 2nd ed. NY: Columbia University Press.